

포스코인터, 美 해상 CCS 사업 진출

〈탄소저장소〉

텍사스 국제입찰 우선협상 대상 저장 가능 탄소 용량 6억t 예상 “친환경 포트폴리오 지속 확대”



인천 송도에 위치한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옥 전경.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해상 탄소저장소 개발에 첫 발을 내디뎠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최근 미국 텍사스 토지관리국이 주관하는 탄소포집저장(CCS)사업 국제입찰에서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입찰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스페인 렘솔, 미국 카본버트, 일본 미쓰이 미국 법인 등 글로벌 에너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으며, 지분은 10%이다.

사업대상 지역은 텍사스 코퍼스 크리스트 인근 해상 578㎢로 서울시 면적과 유사한 수준이다. 컨소시엄은 저장소 평가를 진행 후 개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개발시에는 시추, 플랫폼과 해저파이프라인 설치를 거쳐 수 십년간 저장소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할 수 있게 된다. 저장 가능한 탄소 용량은 6억톤 이상으로 예상되며, 이는 우리나라의 연간 탄소배출량에 달하는 규모이다.

미국 텍사스 연안은 ▲개발 가능성 ▲사업의 용이성 ▲정책과 산업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CCS사업을 위한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텍사스 연안은 이미 수많은 지질 데이터가 축적된 지역으로, 이를 토대로 이산화탄소 저장이 용이한 지역을 선택했기에 개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용이성 측면에서도 육상 CCS사업의 경우 민간 소유지라 파이프라인이 통과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비해 이번 사업은 정부 소유의 해상에서 진행되기에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으로 예상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올해 초 포스코 에너지와 합병하고 글로벌 친환경 종합사업회사를 표방한 이래 그룹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교두보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하나로 CCS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CCS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으로는 1990년대부터 해상 가스전을 개발하며 축적해온 경험과 역량을 꼽을 수 있다. 해저에서 천연가스를 추출하는 가스전 사업과 해저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CCS사업은 역방향으로 유사하기에, 가스전 사업을 수십년간 운영해온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강점을 보유했다는 평가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9월 중 미국에 신규회사를 설립하고, 향후 이번 사업 외에도 추가적인 CCS사업도 본격 추진해 글로벌 탄소 중립 이행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글로벌 탄소감축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친환경 포트폴리오의 지속적인 확대 및 포스코그룹의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cou.co.kr



(왼쪽부터) 마그나 인터내셔널 마커스 크나벨 수석 마케팅매니저, 요르크 고튼도르스트 수석 부사장, LG전자 VS사업본부장 은석현 부사장, CEO 조주완 사장.

LG전자, 마그나 협력 강화 모색

조주완 사장, IAA 마그나 부스 방문 일리가 사장 환담... 협업 방안 논의

LG전자가 자동차 분야에서 마그나와 협력 강화를 모색했다.

LG전자는 조주완 사장이 5일(현지 시간) 독일 뮌헨에서 진행 중인 IAA 모빌리티 2023에 마그나 부스를 방문했다고 6일 밝혔다.

조 사장은 VS사업본부장 은석현 부사장과 함께 마그나 파워트레인 디바이스 사장을 만나 다양한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LG전자는 마그나와 2021년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을 함께 설립하고 힘을 모으고 있다. 전동화 파워트레인과 함께 자율주행 부문에서도 협력을 약속했다.

앞서 LG전자는 IAA2023을 앞두고 진행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LG마그나가 헝가리에 부품 공장을 새로 설립하

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럽에 처음 마련하는 거점임과 동시에, 헝가리에 마그나 차체 공장과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LG전자 CEO 조주완 사장은 “마그나와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전장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전자 전장사업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VS사업본부) ▲전기차 파워트레인(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 ▲차량용 조명 시스템(ZKW) 등 3대 핵심사업의 고른 성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



현대차·기아, ‘로테이터캠’ 공개 AI 기반 車 카메라 센서 자동관리



오염 감지시 커버 회전 자동 세척 특허출원 완료... 양산 여부 검토

현대자동차·기아가 카메라 센서에 묻은 이물질 제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을 공개했다.

현대차·기아는 카메라를 보호하는 커버 글라스의 회전과 소형 와이퍼를 결합해 외부오염을 제거하는 ‘로테이터캠’ 기술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로테이터캠’ 기술은 현대차·기아가 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센서 클리닝 기술 가운데 하나다. 카메라 렌즈 덮개인 커버 글라스를 회전시키는 방식을 적용해 센서의 시야

를 가리지 않으면서도 먼지와 진흙은 물론 물방울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로테이터캠’은 커버 글라스를 회전시키기 위한 전동모터와 커버 글라스 하단부에 위치한 워셔액 공급장치, 그리고 고정형 와이퍼 블레이드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이미지 분석 인공지능(AI)이 오염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워셔액 공급장치를 작동하고 커버 글라스를 회전시킨다. 회전에 의해 오염물질은 소형 와이퍼에 걸러지게 되고 다시 선명한 영상 전송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로테이터캠’은 와이퍼 블레이드와 워셔 노즐이 일체형으로 설계돼

‘로테이터캠’ 이미지

오염 제거 성능이 우수하다. 워셔액이 외부로 비산되는 것을 막고, 워셔액 사용량도 최적화할 수 있다.

현대차·기아는 해당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노즐 부품 기반의 클리닝 기술을 대체하는 것은 물론 레벨 4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에 요구되는 센싱 고도화 기술을 뒷받침해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안전성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대차·기아는 ‘로테이터캠’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을 완료했으며, 내구성 및 성능 테스트를 거친 뒤 양산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기아, 친환경 물류 생태계 조성 박차

롯데글로벌로지스 MOU... 물류 협력

기아가 롯데글로벌로지스와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및 물류 전용 PBV 개발 위한 업무 협력에 나선다.

기아는 6일 양재동 본사에서 롯데글로벌로지스와 ‘친환경 물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물류에 최적화된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개발, 전동화 관련 신기술 실증 등 친환경 물류 사업 전반에 걸쳐 협력할 계획이다.

기아는 롯데글로벌로지스에 봉고II EV를 공급하고, 향후 롯데글로벌로지스의 친환경 물류사업에 최적화된 PBV를 개발해 100% 전동화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양사는 ▲폐배터리 물



박찬욱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이사(왼쪽), 송호성 기아 사장이 6일 양재동 본사에서 ‘친환경 물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류 공급망 최적화를 위한 컨설팅 진행 및 결과 기반의 운영 실증 ▲배터리 교체 기술 실증 ▲사용후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를 활용한 충전 솔루션 실증 등 물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나갈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고려아연 ‘TISAX’ 레벨3 인증

고려아연은 서울 본사와 자회사 케이랩을 대상으로 유럽 정보보호 인증(TISAX) 레벨 3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번 인증을 통해 고객 사들에 더욱 향상된 데이터 보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황인구 고려아연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는 “이차전지 소재사업 관련 유럽 시장 진출에 힘을 보태기 위해 TISAX 획득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르노코리아 “QM6, 최대 390만원 할인”

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코리아)가 QM6의 상품성을 한층 끌어올린다.

르노코리아는 9월을 맞아 선보인 통합형 고객 경험 프로그램 르노 익스피리언스로 Value up(밸류업) QM6 판매 가격을 최대 200만원 인하한 가운데, 기존 2024년형 QM6 LPG 모델에도 최대 39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연계한 차량 내 주둔 결제 시스템, 인카페이먼

트의 가맹점 확대로 고객 편의를 향상시켰다.

르노코리아는 새로운 외관 디자인에 편의사양을 업그레이드하고 더 뉴 QM6로 선보인 2024년형 QM6 LPG 모델을 9월 한 달간 최대 390만원의 혜택을 담아 판매한다. 여기에는 2024 QM6의 트림 별 특별 최대 할인 170만원과 전 시장 특별 프로모션 대상 차량 120만원 할인, 구매 이력에 따라 제공되는 재구매 혜택 최대 100만원이 포함된다. /양성운 기자

에코프로, 컴플라이언스실 신설

신임 실장에 송정원 부사장 영입

에코프로가 윤리경영 제고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컴플라이언스실을 신설했다.

에코프로는 지난 9월 1일, 전문성, 독립성을 높이고자 기존 법무실 산하 컴플라이언스팀을 분리해 컴플라이언스실을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에코프로는 윤리적 이슈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신임 컴플라이언스 실장으로, OECD에 근무하며 글로벌 기업들의 준법경영 시스템에 밝은 송정원 부사장을 영입했다.

에코프로는 컴플라이언스실을 중심으로 준법경영을 점차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허정원 기자 zelkova@